

3. 하느님의 백성에게 봉사하는 임무를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교회와 국가

콘스탄티노스 대제가 교회의 선교활동에 지대한 공헌을 함으로써 그 후로는 국가의 최고통치자인 황제는 하느님의 대변자이며, “말씀의 친구이

며 하느님의 뜻을 해석하는 자”라는 사고가 지배되었다. 콘스탄티노스 대제가 스스로를, “교회 바깥일의 주교”라고 부른 사실이 이를 잘 증명해 준다. 황제는 하느님의 대변자라는 사상과, 동시에 황제는 백성에 의해 선출된 사람이라는 사상 또한 지배적이었다. 그리하여 황제는 하느님과 하느님의 백성의 명령에 따라 백성을 지배하여야 하였다. 최고통치자의 권한은 하느님과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두 근원에서 나온다는 확신은 비잔틴 제국의 황제들은 원로원과 군대와 백성들에 의해 뽑힌 사람들이 임명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과 백성에 의해 선출된 비잔틴 제국의 황제들은 정의롭게 통치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왕국으로 백성을 인도해 나갈 선한 목자로서 모범적인 생활과 태도를 백성에게 보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비잔틴 제국의 황제들은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고 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따라 왕위 즉위기간이 결정되었다.” 라고 요아니스 카라이야노폴로스 교수는 말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타당한 발언이다. 황제가 자신의 이러한 임무를 망각할 때에는 하느님의 법을 어기고 하느님이 세우신 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권력을 잃게 된다.”고 에브세비오스는 말하였다. 따라서 왕이 폭군이 되거나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백성들은 자신의 임무를 망각한 황제를 새로운 황제로 대치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 에브세비오스의 생각이었다.

비잔틴 제국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사상이 현실적으로 구현된 사건이 여러번 있었다. 그 예로 비잔틴 제국의 역사상 65명의 황제가 폭력으로 왕위를 잃었는데, 그 때마다 백성들은 자신의 권한, 즉 새로운 왕을 뽑는 권한을 사용하곤 하였다. 백성이 황제를 선출하는 기준은 그 사람의 가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덕이어야 한다고 대 바실리오스는 말하였다.

비잔틴 제국 시대에는 황제는 훌륭한 사람이어야 하며 하느님과 백성에

의해 선택되는 사람이므로, “왕위세습제가 정당한 법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따라서 최고통치자가 될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왕으로 선출되어 왕좌에 앉을 수 있었다.” 고 카라이야노폴로스 교수는 말하였다.

비잔틴 제국은, 국가의 권력과 교회의 권력은 모두 백성에게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건전한 사고방식 위에서 발전하였기 때문에, 비잔틴 제국 시대에는 교회와 국가간의 사이가 매우 양호하였다. 그 예로 콘스탄티노스 황제와 그를 이은 황제들은 그 전까지 황제들이 사용하던 Pontifex Maximus라는 직위를 버리고, “하느님이 세우신 공동 주교들”이라는 명칭을 스스로에게 붙였다. 그리고 자신들의 임무를, “교회 바깥의 일들”을 하느님의 뜻에 따라, “교회 안의 일들”은 둘 다 모두 동일한 백성에게 관계되는 문제들이므로, 교회 바깥의 주교들인 황제와 교회 안의 주교들인 교회의 통치자들은 모두 백성의 이익을 위해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교회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자신의 행정권 범위 내에서 “하느님의 백성인” 백성들에게 봉사해야 하며, 백성의 물질적 및 영적인 번영을 관심의 중심으로 삼아야 하였다.

정치적인 지도자는 백성의 번영을 돌보기 위해 하느님에 의해 임명된 “교회 바깥일의 주교”라는 개념은 비잔틴 제국 시대에 쓰여진 공문에서도 발견된다. 그 예로 유스티노스 황제는 다음과 같은 주목할 만한 글을 썼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국가에 관심을 가지고 또한 우리의 백성들이 정의 속에서 살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이 법을 만들었다.”

로마제국 시대에는 그리스도교인들의 박해가 심하였으므로 사람들은 국가란 사탄이 세운 제도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국가가 백성들의 번영에 관심을 갖게 된 비잔틴 제국 시대에 와서는 국가가 사탄의 제도라는 사상은 사라지고, 그 대신 사도 바울로의 말처럼, “하느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치자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나 두려운 존재이지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로마서 13:1-3) 라는 생각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치적인 지도자들은 불완전한 인간이므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위를 때로는 남용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며”(디모테오전서 2:2), 통치자들이 하느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을 명령할 때에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느님께 복종해야 한다.”(사도행전 5:29)고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후에 교부들도,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명령에 어긋나지 않는 권위에만 복종하여야만 합니다.”(대 바실리오스), “하느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통치자에게 굴복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합니다.”(테오도리토스)라고 말하였다.

이리하여 비잔틴 제국 시대는 로마제국 시대와는 전혀 달리 새로운 관계가 탄생하여 발전되었다. 국가와 교회 사이에 형성된 이 새로운 관계는 후에 “상호협조관계”하는 명칭이 주어졌다. 이 “상호협조관계” 체제에서는 교회의 권위와 정치적인 권위는 둘 다 보다 높은 권위인 하느님의 권위에서 나온 것이며, 따라서 이 두 권위는 서로 협조해야 하는 관계 속에 있었다. 백성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방어해주고, 국가 안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일, 범죄자를 체포하여 벌주는 일, 시민들의 사회적인 권리를 보호해주는 일 등은 국가에 속하는 일이다. 이처럼 국가의 권한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시작한다.

다시 말해서 국가는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여 모든 사람들이 법에 복종하도록, 자신의 권위를 하느님께서 주신 권위이므로 시민들은 이를 인정하고 이 권위에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가르친다. 또한 국가는 범죄를 줄이고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평화롭고 질서있는 사회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반면, 교회는 온갖 사회적 정치적 불안과 소요의 원인이며 동시에 각종 범죄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원죄를

퇴치하는 것을 주요업무로 삼고 있다.

이처럼 국가와 교회가 각자의 권한에 속하는 관할권의 한계를 인정하는 한, 둘 사이의 관할권에 관한 시비는 일어나지 않는다.